



우리의
家章

青松沈氏宗報

發行人：沈明求
編輯人：沈載烈(輔)
서울市 中區 五壯洞 14-10
電話：(02)2267-7857
(02)2263-7897
FAX：(02)2269-7755

非賣品 1996. 1. 3 등록번호 서울라 - 549호

홈페이지 | www.cheongsongsim.or.kr

十一世祖 贈吏曹參判行 信川郡守公(諱 孝謙) 墓碣銘

휘 효겸



▶ 휘 효겸 묘소(향토유적 제18호) 소재지 : 김포시 장기리 高昌山 陵村

▶ 묘비석

明宗二年(1547)년 丁未 9월 20일에 沈公 휘 효겸(諱 孝謙 字 公述)은 漢城에서 출생하였다. 부친은 익효공 청릉부원군 휘 강(翼孝公 靑陵府院君 諱 綱)이요, 모친은 완산부부인이씨(完山府夫人 李氏)로 증판서대(判書 薊)의 따님이다.

대개 동기(同氣) 간 열명중에서 공이 일곱 번째인데 인순왕후(仁順王后)가 탄생하여 첫째이다. 공은 훌륭한 문벌에서 태어나 성품이 순수하고 온공 겸박(恭儉)하면서 명예를 구하지 아니하였다. 나이 30세에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였고 조사의 음덕으로 벼슬길에 올랐다가 임진왜란에 선조대왕(宣祖大王)을 호종(扈從)하였고 49세에 홍산현감(鴻山縣監)으로 나갔다가 사소한 혐의로 벼슬을 버리고 돌아왔으며 곧 信川郡守로 나가서 4년 만에 돌아왔다.

나이 54세에 금릉(金陵: 김포古號) 옛집에서 세상을 떠나니 선조경자(宣祖庚子:1600년) 9월 24일이다. 10년이 지난 庚戌년에 좌승지(左承旨)로 증직 되었고 乙

卯년에 이조참판(吏曹參判)으로 다시 증직 하였으니 대개 일찍이 임금을 모시고 국란에 따라갔던 공로이다.

일송 심정승 희수(一松 沈相國 諱 喜壽)의 만사에 이르기를 마음은 충효가 온전하니 아름다웠고 습관을 사치를 물리치니 깨끗하였다 성밖에 비바람 가릴만한 삼칸(三間)집이요, 바다 가에 채소밭 한 필지이다. 라고 하였고 만취 오공 역령(晩翠 吳公 億齡)의 만사(輓)에 이르기를 사치로운 습관을 애써 물리치고 초야(草野)에 묻혀 지내려 하였다. 벼슬길에 명성을 떨치고 시험장(場屋)에서는 큰 재주를 뽐내셨다.

아아! 공의 숨은 행적과 나타난 덕을 지금에 자세하게 드러낼 수 없으나 조용한 몇 구절 말씀에서 공의 충효의 완전함과 공겸(恭儉)한 행실을 상상(想像)할만 한데 이밖에 더 많은 것이 필요할 것인가? 지금에 공의 五代孫 정좌와공(靜坐窩公)의 행장(行狀)으로 인하여 사실을 기록하게 되는데 후손 상필(相弼)이 비명(銘)을 요청한 것이다.

심씨의 본관은 靑松이니 청성백 휘 덕부(靑城伯 諱 德符)와 청천부원군 휘 온(靑川府院君 諱 濩)과 공숙공 휘 회(恭肅公 諱 滄)와 충혜공 휘 연원(忠惠公 諱 連源)은 모두 높은 벼슬로 나라에 바친 공로가 역사에 빛난 것은 더욱 조상의 덕택인데 충혜공(忠惠公) 이 익효공(翼孝公)을 낳은 것이다.

공의 처음 부인은 의령 남씨(宜寧南氏)인 군수 응서(應瑞)의 따님이요, 다음 부인은 고성 이씨(固城 李氏)니 충의위 경(忠義衛 磬)의 따님으로서 모두 貞夫人으로 추봉(追封) 되었다. 남씨는 무후(無育)하였고 이씨는 二男二女를 두었으니 맏아들 폭(幅)은 현감으로 증직 호조참판이요, 다음 아들 척(楊)은 강화도에서 사절신(死節臣)으로 증직 이조참의이며, 딸은 현감인 원주 김수(金脩)에게 출가하고, 다음 딸은 찰방(察訪)인 광주 이필수(廣州 李必壽)에게 출가하였다.

폭(幅)의 소생은 동지 정일(同知 廷逸)과 정철(廷哲)과 동지 정걸(廷傑)이요, 딸은 이인부(李仁富)에게 출가하고 아들은 정천(廷錢)과 정한(廷漢)과 정호(廷豪)이다. 딸은 송홍 윤승(宋泓 尹陞)에게 각 출가하였다.

척(楊)의 소생인 딸은 증지평 이훈(贈持平 李翕)에게 출가하고 아들은 정준(廷俊)이다. 廷逸의 소생가(榘)는 參奉이요, 廷哲의 소생은 침(稭)이요, 廷傑의 소생 현(櫟)은 첨지(僉知)요, 릉(稜)은 봉직랑(奉直郎)이고 다음은 모두 기록하지 못하였다.

공의 묘소(幽宅)는 김포 高昌山 陵村 西坐이니 李夫人은 합장이요, 南夫人의 묘소는 공의 묘소 동쪽 기슭 건좌(乾坐)이다.

아! 공의 스스로 닦은 행적을 찬양할 묘갈이 없었는데 지금에 후손들이 비석 세우기로 합의하고 막연한

(2면에서 계속)

大同世譜(庚辰譜)申請案内



2002년도에 발간·배포한 대동세보(족보)를 아직까지 모시지 못한 집안에서는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동세보 : 전 12권(수권1권, 자손록 10권, 색인1권)과CD롬 (대동세보 전 내용과시조 ~ 4세조 산소 동영상을 수록하였으며 모든 한자에 음 표기함)

○보급가격 : 22만원(CD롬 포함) CD롬 별도 구입시: 20,000원 / 수권 별도 구입시:40,000원

○송금구좌 : 농협 084-01-179314 심명구

※ 대금을 송금하신 후 대중회(02-2267-7857, 팩스 : 02-2269-7755)에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려주시면 즉시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 대동세보 편집자료 제출시 족보예약금을 납부하고 아직 잔금을 내지 않아 받아보지 못한 분들은 '청송심씨대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명단이 게재되어 있으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책자 강매』 주의

대중회를 사칭하면서 책자구입을 강요하는 전화가 많습니다.

책자를 보내오면 대금을 송금하지 말고 즉시 반송하시기 바라며, 다른 분들에게도 이러한 사실을 알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중회에서는

대동세보(경진보 : 22만원)와 대동세보 수권속편(10만원) 이 외는 보급하는 책자가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1면에 이어서〉

친구가 나에게 비명(銘)을 부탁하므로 사양하다가 부득이 비문을 지었는데 명(銘)에 이르기를.

生而斂華 : 생전에는 사치를 물리쳤고

歿有令名 : 세상을 떠나서는 이름을 떨치었다.

懿親散官 : 조상의 덕택으로 벼슬하였고

鴨綠忠盟 : 임금님을 모시고 따라갔던 충성이로다.

松翠兩誥 : 일송(一松)과 만취(晩翠)의 두 만사에서

辭約得衡 : 행적이 드러났도다.

天佑仁善 : 하늘이 어진 이를 도와서

永保期塋 : 이 묘소를 길이 보존하리로다.

開天 4324년 신미(辛未) 광복절(光復節)에

전성군관전의(前成均館典儀) 은진(恩津) 송공호(宋貢鎬) 삼가 지음

<문예론>

광주판관 태등 심노승(廣州判官 泰登 沈魯崇)

베개맡에서 지은 글 (枕上集序)

이 글들을 심상집 枕上集 이라고 하게 된 것은 바로 베개맡에서 글들이 지어졌기 때문이다. 내가 아내의 상을 당해 근심이 있게 된 후로부터 지은 시문이 대부분 베개맡에서 나왔기에 이렇게 이름하였다.

나는 본디 잠을 잘 자서 누우면 바로 잠에 폭 빠졌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마음에 번민이 있으면 잠을 못 잔다고 하나 나는 잠만이 마음의 번민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요사이에는 완전히 이와 다르니 삼경사경 오경 그 어느 시간에도 잠들지 못하여 촛불 아래서나 이불 속에서나 정신만 말뚱말뚱하였다. 책을 읽어 봐야 마음이 거기 있지 않고, 사람과 얘기를 나눠 봐야 남만 괴롭히게 되며, 바둑이라도 구경하려 하나 짝이 없고, 거문고를 듣자니 이는 상중(喪中)의 예의가 아니다.

벽을 마주하여 혼잣말을 하자니 자학함이 너무 지나치고, 옷을 들고 나가 한가로이 걸어보고자 하나 미친 사람에게 가까울 것 같다. 오직 술을 마셔보지만 취하면 잠들 수 있으나 중간에 술이 깨면 더욱 잠들기 어렵게 되었다. 이전에 말한 잠이 번뇌를 이긴다는 것은 내가 일찍이 정말 큰 번뇌를 겪어 보지 못해 그랬던 것뿐이니, 작은 번뇌라면 이기겠지만 큰 번뇌에는 애초 전혀 잠이 들지 못하니 어찌 이길 수 있으리오? 열흘이 지나고 한 달이 다 가도록 끝내 잠들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였다.

서울을 떠나 파주(坡州)에 머문 뒤로는 사람 만날 일도 적어져 빈 산의 어지러운 매미소리에 종일 하늘만 바라보았으니 내 몸을 스스로 돌아봐도 사람 꼴이 아닌 듯했다. 대낮에도 거의 베개맡에 있으니 하물며 저녁이야 말해 무엇하리오! 어느덧 교외에 싸늘한 가을 기운이 일어 온갖 벌레들 울어대고, 서쪽 숲으로는 달이 지고 빈집에는 고요히 아무도 없으니, 홀연 온갖 시름이 다 잊혀지고 오로지 잠을 자야겠다는 일념뿐이다.

진실로 잠들 수만 있다면 저 죽은 이의 캄캄함은 내다시 보고 싶지도 않다. 차라리 북쪽 창가에 나가 복희씨(伏羲氏)를 뵈고 남녀가 혼인하는 제도는① 무엇하러 만들어 이러한 화(禍)를 생기게 하였는지 묻고 싶으나 이도 불가능하여 혀만 끌끌 차며 허공에다 글씨를 써 볼뿐이니, 마치 가슴속에 병이라도 있는 듯했다. 그러다 문득 스스로 깨닫게 되었다.

시문을 지으면 바야흐로 그 마음이 손과 함께 움직여 눈으로 보고 입으로 읊조릴 것이다. 시문 짓는 일과 잠드는 것이 서로 도모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문 짓기를 많이 하면 잠 또한 많아질 것이고, 마침내 잠이 시문 짓는 것보다 많아져 시문을 지을 시간도 없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자 절로 웃음이 나오고 기분이 좋아져 드디어 밤낮으로 베개맡에서 시문을 지었다. 처음에는

수심만 보태는 듯하고 잠도 들지 못하더니, 조금 있자 수심과 잠이 반반쯤 되었고, 또 조금 뒤에는 잠이 많아지고 수심은 적어지게 되었다. 이제는 거의 수심을 잊은 채 잠들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지은 시문이 책을 이룰 정도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보였더니 어떤 이는 말하기를,

운명 그 자체가 궁한 것이지 그게 어찌 시문의 죄이리오? 오히려 시문으로 궁함을 잊고 있으니 그 궁이 크다 할 만하다. 라고 말하였다.

그 삶과 죽음이 사이에서 정은 아녀자 같고, 오래도록 만나지 못하는 사이에 자취는 나그네 같아, 때로 슬픔이 지나쳐 상(傷)함에 이르기도 하고, 후회가 극에 달해 원망이 일기도 하니 이러한 것들이 다 이 안에 담겼다.

이는 할아버지의 정이니 할아버지일지라도 할아버지의 정을 아는 자가 아니면 함께 이 안의 글들을 읽을 수 없을 것이다.

임자년(1792) 7월 10일 태등(泰登)은 파산(坡山) 분암(墳菴)에서 쓰다.

① 중국 전설에 복희씨가 혼인제도를 창시하여 사슴가죽 한 쌍으로 예물을 삼았다는 얘기가 전한다.

*** 심노승은 1792년 5월 네 살 된 셋째 딸을 잃고 그로부터 한 달이 채 못 되어 아내마저 잃게 된다. 그 후 2년여 동안 그는 우리나라 문인으로는 유례가 없는 많은 양(시 26제, 문 23편)의 도망시문(悼亡詩文)을 남겨 비통의 정을 쏟았다. 이 가운데 일부 글들은 침상집 과 미안기(眉眼記) 라고 소집(小集)으로 엮어졌다. 침상집 에는 상장기(喪葬記) 망실일행기(亡室言行記) 망실실기(亡室實記) 고제문(告祭文) 등이 수록되었다.

아우 심노암은 형의 침상집 수록작들을 두고 인과설을 인용한 것은 불경한 일이요, 미안(眉眼)의 시를 취함은 바름이 아니다. 번다한 제문(祭文)은 마치 묻고 답하는 듯, 죽은 자식에 대한 언급에선 바른 뜻을 헤아리지 못하였다.

거사(居士)가 이렇게 짓고 있는 것은 슬픔이 지나친 것임에도 그 스스로 알지 못해서인가! (梯田遺稿 3책, 침상집서)라 말하고, 이어 시경 에는 부부 사이의 즐거움을 노래한 작품만 있고 사별(死別)의 애통함을 담은 작품이 없음을 지적하며, 그 살아 생전을 알면 죽은 뒤 또한 알 수 있고, 그 즐거움을 말한즉 슬픔은 다시 말을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이니 이것이 시경 의 은미한 뜻이요, 성정의 바름인 것이다. 이러한 뜻을 잘 절충한다면 이 침상집 은 의당 즐기고 생략해야 할 바가 아니겠는가! 애절한 충고를 한 바 있다. 그럼에도 심노승은 침상집 이후에도 계속 도망시문을 이어 당(唐) 원진(元稹)의 도망시 두 눈 뜬 채 이 밤 지새워, 평생 고생한

당신에 보답하려고 (惟將終夜長開眼, 報答平生未展眉)에서 글자를 취해 미안기(眉眼記)라 이름하여 묶었다.

미안기 에서는 고제문(告祭文) 같은 의례적인 글들을 넘어 보다 다양한 문체들을 수록하고 있다.

옮긴이 김영진(태학산문집, 눈물이란 무엇인가) 전제

青松沈氏舍人公派宗會(유사단체) 臨時總會 開催 公告

우리 사인공파종회에서는 수년간 산송사건(山訟事件)이 있어 송사(訟事) 전념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금일에 이르러 다시 송사를 재개함에 있어 협의해야 할 사항이 많아 통지문을 내고 소집 하고자 하나 주소불명으로 한계가 있어 종보에 공고하오니 양해하시고 이 소식을 접하신분은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시어 종사에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사건개요

위 산송사건은 사인공의 종손(沈元輔)家에서 8世祖 舍人公(휘: 順門) 9世祖 忠惠公(휘: 連源) 10世祖 翼孝公(휘: 綱)의 묘소와 9世祖, 10世祖의 兩代의 문화재(신도비)가 있는 김포시 통진읍 웅정리 산 14-2의 3만여평을 비롯하여 여러 세대에 걸쳐 묘소가 있는 임야를 합쳐 약 10만평 이나되는 명의신탁한 종중땅을 아버지로부터 지분상속을 받아 개인 소유화하고 종중 땅은 단 1평도 없다고 하여 산송이 시작되었습니다.

2. 宗 會

사인공파종회는 1998년 9월 25일 沈元燮씨의 발기로 시작하여 여러번 거듭하여 종회가 구성되었음에도 소송당사자간에 종회의 합법성 문제가 제기되는등 또 다른 분쟁이 야기되었습니다. 이 모든 문제들을 상의(決議)하기 위하여 총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3. 日時, 場所

- ◆ 일시 : 2007년 12월 14일(금요일) 오전 11시
◆ 장소 : 성균관대학교 유림회관 (서울 종로구 명륜동)
◆ 교통 : 지하철 4호선 4번출구에서 성균관대학으로 가는 마을버스 이용(대학 정문 앞)
◆ 연락처 : 사무실 : (02)2263-7897 핸드폰 : 017-267-7857

※ 참석시에는 도장을 지참하시고 불참 시에는 위임장을 아래 주소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오장동 찬경회관 내 사인공파종회 담당자(회장: 沈永澤) 앞

2007년 12월 青松沈氏舍人公派宗會 會長 沈永澤

기녀 일타홍(妓女一朶紅)의 지혜 ④

- ① 일타홍, 심희수와 첫만남
- ② 심총각이 잠에서 깨어나다.
- ③ 띠꺼머리 심총각이 장가를 가다
- ④ 심희수가 과거보러 나갔는데
- ⑤ 다시 일타홍과의 이별

심희수가 과거보러 나갔는데

사랑하던 여인에게 버림받은 심정에 어떻게든 과거에 급제하여 일타홍을 다시 찾아오겠다는 일념으로 분발한 지 1年, 마침 별시문과(別試文科) 과거가 있다는 방을 보았다. 이 과거는 나라의 경사가 있을 때나 丙年에 보는 과거중 이번 과거는 나라에 경사가 있어 기념으로 치르는 과거였다.

초조하게 여러 날을 기다리던 끝에 드디어 과거 날이 닳아왔다 심희수는 목욕재계하고 붓, 먹, 벼루 등을 꼼꼼히 챙겨 집을 나섰다. 얼마나 기다리던 과거이던가! 돌이켜 보면 일타홍을 만나서 다시 공부를 시작한지 만 4년, 그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으나 다녀와서는 반드시 그녀를 찾아 함께 할 것이라 결심을 하였다. 과거장에 당도하고 보니 각처에서 올라온 기라성 같은 인재들이 구름같이 모여들어 아주 어려운 과거장이 될 것 같이 생각되었다.

한편으로 떨리고 초조하였다. 만일 낙방이라도 한다면 어찌 할꼬, 어머니의 낙담하는 그 모습, 그리고 일타홍을 어디 가서 찾을 것인지? 그것부터 걱정이 되는 것이다. 그러저럭 시간이 흘러 과장에 과시는 시작되었고 얼마 안되어 종료되니 이제는 채점이 끝나고 방이 나붙기만 기다리면 된다. 긴장의 순간들은 계속 이어지고 얼마가 흘러 급제자의 방이 나붙었다. 정신 없이 달려가 명단을 보니 첫눈에 봐도 내 이름이 보인다. 가슴은 터질 듯 두근거리고 그 순간에도 어머니, 일타홍의 얼굴만 아롱거린다. 심희수는 그 많은 경쟁자들을 당당히 물리치고 문과에 급제 한 것이다.(이때 급제자는 36명이나 후에 정승반열에 오른 분은 심정승 한 분뿐임.) 쉽게 흥분이 가라앉지 않는다. 심희수는 뛰기라도 할 듯이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다. 다짜고짜 어머니에게 큰절을 올리며

어머님! 제가 급제를 하였습니다! 이번 과거에 급제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가 어머니의 보살펴주신 덕택이 옳니다 하니 초조하게 아들만을 기다리던 어머니는 아들이 급제하였다는 말에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시며 오! 내 아들이 참으로 장하구나,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하시면서

너의 오늘의 영광은 내가 아니라 일타홍의 헌신적인

노력덕분이니라. 그러나 이제라도 일타홍을 찾아 이 기쁨을 함께 누려야한다

어머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심희수는 이날부터 일타홍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수소문하였으나 간 곳이 묘연하였다. 심희수는 일타홍이 그리워 자나깨나 일타홍 생각뿐이다. 그러던 어느 날 급제 된지 10일만에 심희수에게는 유가(遊街)의 날을 맞았다. 유가란 급제자가 과거의 시관(試官)과 위 어른들에게 감사 인사를 올리는 행사이다. 행사는 보통 三日간을 하는데 하루는 문득 김재상(宰相)택에 들르게 되었다. 김재상은 돌아가신 아버님과 가까웠던 사이였기 때문이다. 김재상은 심희수를 보더니, 자네의 이번 급제를 진심으로 축하하네, 우리 자네를 위하여 축하주를 한잔 해야하지 하겠나 하시며 주안상을 차려오게 하였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급제 단장하고 주안상을 들고 들어오는 여인은 일타홍이 아니던가. 심희수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일타홍도 깜짝 놀라 하마터면 주안상을 던질 뻔하였다. 이 광경을 보고있던 김재상이 무슨 영문인지 몰라 어리둥절하다 아니 두 사람이 아는 사이던가? 심희수는 그제야 마음을 가다듬고 그간에 있었던 일타홍과의 사연을 소상히 말하였다. 그리고 지금 찾고 있다는 말도 하였다.

아 그렇던가. 이 애가 자네 副室일 줄이야 누가 알았겠나. 심희수는 일타홍이 어떻게 이곳에 있었는지 궁금하다. 김재상에게 물으니.

一年前 어느 날 참채 보이는 한 처자가 찾아와 오갈데 없는 몸이오니 찬모로라도 써주십시오. 하고 사정을 하기에 딱해 보여 그리했네. 그런데 음식솜씨는 말 할 것도 없고 모든 일에 민첩하고 영리해서 내 수양딸을 삼아 친자식처럼 사랑하고 있다네 라고 하였다. 말이 끝나자 일타홍은 조심스레 심희수의 앞에 나와 큰절을 올리며, 서방님의 문과급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일타홍을 바라보니 두 뺨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심희수도 그리도 그리던 일타홍을 만나니 감격에 못 이겨 눈물을 흘리며, 나의 이 영광은 오직 너의 그 큰 희생으로부터 나온 것이니라 하며 일타홍의 두 손을 살며시 잡는다. 일타홍도 감격하여 떨리는 목소리로, 그것은 모든 것이 서방님 노력에 의한 것이지 소첩이 무엇을 했다 하시옵니까? 그런데 그간 마님은 기체후 만강하시옵니까? 심희수는 대답 할 수도 없이,

저의 노모가 일타홍을 많이 기다리고 있사오니 일타홍을 집에 데리고 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노재상은 꺾꺾 웃으면서. 여필종부라 했으니 당연히 함께 가야겠지. 그러면 자네는 내 사위가 되는 것이니 내 딸을 전보다도 더욱 아껴주게 이것이 딸을 보내는 부모

의 심정이라네, 심희수는 일타홍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일타홍을 본 노모도 감격의 눈물을 흘리시며 일타홍의 두 손을 꼭 잡고, 내 아들이 네 덕에 문과급제를 하여 뉘 뜻이 좋으나 네 소식을 몰라 애만 태우던 차에 너를 다시 만나니 다시없는 경사로다 이렇게 서로 회포를 풀고있으니 이 세 사람에게엔 지금이야말로 가장행복한 순간이었다.

심희수는 다음달부터 조정에 출사하였고 그 다음해에는 승문원정자(承文院正字)의 벼슬을 제수 받았다. 승문원 정자에 승급되고 보니 너무나 감개가 무량하다. 이 벼슬은 작고하신 아버님의 마지막 직책이었기 때문이다. 내가 이때를 맞아 그 벼슬에 오르고 보니 새삼 아버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심희수는 이렇게 계속 승진하여 홍문관수찬(弘文館修撰)으로 있을 때였다. 하루는 선조(宣祖)께서 심수찬을 어전으로 들게하여 임금님을 배알하게 되었다. 임금님께서, 심수찬(沈修撰)은 부실(副室)을 두고 있는가? 예 그러하옵니다,

이름이 일타홍이렸다. 심수찬은 깜짝 놀랐다. 어찌 임금님께서 일타홍을 알고 계신가 생각하며, 예 그러하옵니다. 그러면 내일 일타홍을 대동하고 입궐하라. 하시는 것이다.

이는 일타홍이 양부로 모시던 김재상이 대궐에 들러 임금님을 알현하는 자리에서 심수찬과 일타홍과의 지난날 사연을 소상히 고하였는데 이 말을 들으신 상감님이 일타홍을 가상히 여겨 부르신 것이라 하였다. 다음날 심수찬은 일타홍과 함께 임금님을 배알하게 되었다.

선조께서는 일타홍을 보시고, 내가 기생의 몸으로 나라의 재목이 될 사람을 길러냈으니 심씨 일가의 은인일뿐 아니라 과인에게도 다시없는 큰 은인이로다.

그래서 짐은 고마운 뜻으로 이제 너에게 작으나마 보답코자하니 무엇이던 네 소원을 말하거라 그러나 일타홍은 아무 말도 못하고 떨고만 있는데, 염려하지 말고 무슨 소원이던 말해보라. 이것 또한 과인의 기쁨이 아니겠느냐 상감의 재촉에 일타홍은, 황공하옵나이다 심수찬을 금산군수로 제수하여 주신다면 신첩은 그 이상 기쁜 일이 없겠나이다 이 말을 듣고있던 선조께서는 지극히 의아해 하셨다. 왜 하필이면 시골 금산고을이나?

금산고을은 신첩의 부모가 살고 계신 고향이옵나이다. 심수찬께서 금산군수(鎭山郡守)로 제수 받으시어 부임하시게되면 신첩으로선 금의환향 일 것으로 아뢰옵나이다

과연 너는 영특한 아이로다 선조께서는 감탄을 하시며 그 자리에서 심수찬을 금산군수로 제수하여 주셨다.

(다음호에 계속...)

대동세보 수권속편(외 4종) 신청안내

구 분	페이지	가 격	신청부수
1. 대동세보 수권(속편)	1,134	50,000원	()권
2. 청송심씨세고선(한시집)	448	30,000원	()권
3. 종보축쇄판(1-50회)	400	20,000원	()권
4. 제향활기(휴대용)	30	3,000원	()권
5. 종사수첩(휴대용)	120	3,000원	()권
6. 뱃 지		1,000원	()개

▶ 1, 2, 3 세권을 일시구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4, 5, 6 세가지 물품을 무상으로 드립니다.

* 수령인 주소 및 송금내역

파 명	이 름	집 전 화	휴 대 폰
주 소		우 편 번 호	
송 금 일 자	송 금 인	금 액	송 금 은 행
			()은행 ()지점



수권속편 질 단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1질 단위는 발송비 없음.
질단위 외에는 발송비 3,000원을 대금에 합산하여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번지와 동 호 수 까지 자세하게 기재, 집 전 화 휴대전화를 꼭 기재요함.
송금인이 본인인 아니면 반드시 송금인의 이름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보 내 실 곳 ◀

우편번호 100-310 서울 중구 오장동 14-10(찬경회관)
TEL: 02)2267-7857, 2263-7897 FAX: 02)2269-7755
* 송금구좌 농협 084-01-179314(심명구)



도올고함(孤喊)

도올 고함(孤喊) 김용옥 교수 조선시대 경제인 沈大允의 재발견

요즘은 민심의 대세는 경제다.

오직 경제를 잘 살리는 자만이 治世의 正道를 걷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대선주자를 바라보는 민중의 눈도 이 기준에서 한치 벗어나지 않는다. 오직 경제! 이명박 손학규 문국현 등등의 인물이 부상하는 핵심적 가치에도 경제 살리기라는 민중의 갈망이 배어있다. 그러나 우리는 경제를 바르게 파악해야 한다. 경제란 경제제민(經世濟民)을 일컫는다. 그것은 오늘에 특별한 유행은 아니다. 오직 경제! 그것을 외침 민심이나 그 민심을 파악한 창조적 사상가들은 19세기 조선왕조의 격동기에도 숨쉬고 있었다.

조선왕조를 지배한 주자학이라는 학문은 천리를 보전하고(存天理) 인욕을 버린다(去人欲)는 도덕주의적 명제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기 때문에 인욕을 긍정적으로 파악하지 못했다. 漢나라의 大儒 동중서(董仲舒)는 일찍이 유자의 도리는 義를 바로 하고 利를 도모하지 않으며, 道를 밝히고 功을 계산하지 않는다 라고 말했다. 이와 같이 유교가 인욕을 부정하고 공리를 배격한다면 그러한 가치관 속에서는 경제를 일으키는 정치가 행하여 지기는 어렵다.

欲이야말로 하늘이 인간에게 부여한 본래적 천성이다(欲者天命之性也). 欲이야말로 性과 心과 情의 주인이다. 인간이면서 욕이 없으면 木石과 무엇이 다르랴 道는 필히 利에 근본 한다. 사람으로서 富를 욕구하는 것은 천성이다. 人欲이 천리를 이기지 못하는 것은 오래된 인간에 향상스러운 모습이다. 군자도 사람이다. 어찌 인간답지 못한 자라야 군자가 된다는 그런 엉터리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는가 과거 정통유학의 분위기를 알면 소스라치게 놀랄 이런 이야기를 거침없이 내뱉는 이는 누구일까?

심대운(沈大允: 1806~1872)! 다산 정약용(1762~1836) 보다 한 세대 아래고 수운 최제우(1824~1864), 해강 최한기(1803~1877)와 동시대 사람이었던 그는 바로 이러한 그의 사상의 과격성 때문에 최근까지 역사에 파묻혀 지내야 했던 대학자였다. 서거한지 133년이 지난 재작년이나 그 방대한 전집이 공간 되기에 이르렀으니 그간에 맺힌 애한(哀恨)을 어찌 다 설(說) 할 수 있으리오!

그의 고조부 청송심씨 심수현(沈壽賢)은 영조때 영의정을 지낸 사람이다. 그의 둘째 아들 부제학 東里 심악(沈錫: 1702~1755)은 나주괘서(羅州掛書) 사건이 도화선이 된 乙亥獄事에서 억울한 죽음을 당한다. 영조는 영민한 임금이었지만 출신성분이 천한 무수리의 아들이고 등극 과정에서 景宗을 독살했다는 풍문에 시달려야 했기에 결국 친아들 사도세자를 죽이기까지 하는 묘한 콤플렉스에 지배당한 인물이었다. 등극과정에서 老論의 덕을 본 그는 처음에는 少論을 중용하는 척하다가 결국 소론을 크게 배척하고야 만다. 강경한 소론(峻少)의 중심인물 중 하나였던 심악은 자변소(自辨疏: 일종의 전향서)를 강요했으나 거부하고 상계동 당고개에서 떳떳하게 처형당하고 만다. 그의 부인은 다섯 살 난 아들을 데리고 광양지역의 관비로 끌려갔으나 그곳에서 정조를 지키기 위해 자결한다. 이 천애고아의 손자가 바로 대운이다.

대운은 경기도 용인 안성지역에서 살았다. 대유(大儒)의 집안이었으나 영락하여 끼니를 이을 수 없었다. 그래서 생각다 못해 안성 읍내에 들어가 반상(盤床)을 만드는 공방(工房)을 차려 생계를 잇는다. 그리고 약방도 경영했다. 당시로 볼 때는 너무도 과격적 결정이었다. 가장 천시 받는 工人, 商人으로 살면서 그는 인민의 福利를 구상하게 되었고 그 체현적 진리에 따라 유교경전을 새롭게 해

석해 낼 수 있는 이론적 틀을 완성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의 학문적 성과를 종합한 대표적 저술을 복리전서(福利全書)라고 명명하였다. 최한기의 기학 과 최수운의 동



▶ 심대운 전집 3권

경대전 과 심대운의 복리전서 가 모두 1860년 전후로 성립하였으니 이런 사상가들의 즐기찬 노력으로 우리민족은 근대적 가치관을 매우 착실하게 다져나가고 있었다.

利의 긍정은 自利와 他利의 충돌을 불러일으킨다. 그래서 그는 同利를 말하고 至公을 말한다. 이기적 利간의 균형을 그는 忠과 恕라는 전통적 유교개념에 입각하여 창조적으로 해석한다.

일찍이 정인보 선생이 심대운의 저작을 발(跋)하였고 하버드대의 한국학 학자 故 와그너 교수의 日人 스승인 다카하시 도오루(高橋亨)가 그를 하국 정제두의 적통을 이은 양명학자로 지목했으나 우리 학계는 심대운을 주목하지 않았다. 양명학을 계승했다기보다는 체행에서 우리나온 사상적 경향이 양명학과 부합되었을 것이라는 成均館大 동아시아 학술원 원장 임형택 교수의 주장이 설득력 있다. 임교수는 심대운전집 을 成大 대동문화연구원에서 발간하여 그 가치를 선양(宣揚)해 한 장본인이다.

경제를 말하는 대선정국이 힘써야 할 것은 경제 그 자체가 아니라, 경제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같이 이롭게 되는 大公의 사회라는 것을 우리 선조들이 이미 간파했음을 여기 명기해 둔다.

도올 김용옥(中央日報에서 轉載)

그 後의 沈大允公

21世 東里 휘 大允公은 영의정 휘 壽賢公의 高孫으로 영의정공의 2子 부제학공(沈錫)의 증손이다. 증조이신 악(沈錫)公은 영의정공의 五子中 둘째 아들로 英祖31년 나주괘서(羅州掛書)사건의 중심 인물로 연루돼 화를 당했으며 이 때에 兄 욕(鎔)公께서는 벼슬이 대사헌으로 이미 2년 전에 별세하고 아래 동생들은 용인과 안성등지로 헤어져 산 것으로 추정된다. 그 이유로 曾祖父,母와 함께 그 후대는 거의 陽城面 九萬里에 묘소가 있다. 영의정 가문이 폐문을 당하고 이곳으로 낙향한 것이다.

그로부터 3대를 내려와 東里公은 천민의 신분으로 안성 東里에서 상 만드는 공장을 경영하여 돈을 벌며 부자가 되었다. 공은 이때부터 열심히 공부를 하여 몇일만에 책 한 권씩을 저작하였다. 하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며, 그리하여 대유(大儒)의 인물이 되었다. 1841년도에 전라도 광양까지 내려가 그곳에 계신 先代山所를 찾아내어 유골을 수습하고 안성 양성면 구만리로 이장하였다. 현재에 와서 안성 양성면과 공도면에 구만리를 문의하였으나 알 길이 없고 족보상으로는 아들 2명이 있으나 어찌된 일인지 후대에 기록이 없다.

大宗會 文化部

도올 선생은 악(錫)자를 문중 족보를 따라 확자로 명기했으나 족보의 편집증 음이 오기 되었으며 악 으 로 발음하는 것임을 밝혀드립니다



● 송 금 안 내 ●

찬조금 또는 홍보 회비를 송금하실 분은 아래 구좌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은행 033-031098-04-046
대중회 심명구
농 협 084-12-055823
(을지로4가지점) 084-01-179314
대중회 심명구

본 성금이나 회비는 전액 홍보발간에 사용하고 있으며 별도회계로 독립 재산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 송 심 씨 대 중 회
전화: (02)2267-7857

5처산소 유사연 락 처

世	관 직	소재지	유 사	전화번호
시 조	문림랑	청 송	相國亮 相宜亮	011-554-1313 016-9225-3618
2세조	합문지후	합 열	瑑 燮	011-676-0892
3세조	청화부원군	안 성	庚 周	011-9801-4815
4세조	청성백	연 천	良 燮	011-728-2104
4세조비	청주송씨	청 주	成 輔	019-480-9994

宗 事 消 息

始祖 文林郎公(諱:洪孚)秋享奉行

10월19일(음:9월9일)



始祖 妣位
 初獻: 敏燮
 亞獻: 相稷 胤燮
 終獻: 相海 英求
 大祝: 容圭 執禮: 華燮
 執事: 相燮 載澈 相守 洪燮 相國
 中臺山所 獻官: 宜亮
 ▶祭需獻誠金
 안효공중회 : 300,000 김포신천공중회 : 300,000
 도총제공중회 : 200,000 울산내금위중회 : 200,000

三世祖 靑華府院君(諱:龍)秋享奉行

10월23일(음:9월13일)



靑華府院君 妣位
 初獻: 庚周 載烈
 亞獻: 敏燮 容圭
 終獻: 載求 載玉
 大祝: 相直 執禮: 相稷 執事: 載澈, 相鶴
 ▶祭需獻誠金
 安孝公宗會 : 300,000 承澤(예산중회장): 300,000
 都摠制公宗會: 100,000 奎澤(남가좌동) : 100,000

五世祖 仁壽府尹公(諱:澄)秋享奉行

10월27일(음:9월17일)



仁壽府尹公(諱:澄) 初獻 亞獻 終獻 大祝 執禮
 良惠公(諱:石雋) 贊求 愚慶 修吉 相華 載求
 配位 愚寬 載錫 相直 德求
 滄洲公(諱:之漢) 璋燮 榮燮 在殷 英輔
 忘世亭公(諱:璿) 晶求 忠植 愚永 愚寬
 配位 贊求 徵植 求亨 愚瓚 奎澤
 兵使公(諱:安仁) 相華 愚寬 愚瓚 愚瓚 奎澤
 肅川公(諱:宗忱) 載錫 駿求 正求 相華
 贈領議政公(諱:僕) 贊求 求亨 元基
 晚沙公(諱:之源) 晶求 晚求 範求

二世祖 閣門祇候公(諱:淵)秋享奉行

10월21일(음:9월11일)



始祖 妣位
 初獻: 載烈
 亞獻: 相汶 成輔
 終獻: 學燮 載玉
 大祝: 相直 執禮: 相稷
 執事: 佶燮 仁求 暎衍 載日
 ▶祭需獻誠金
 도총제공중회 : 100,000 울산내금위공중회 : 200,000
 안효공중회 : 300,000 춘천신천공중회 : 100,000
 承澤(예산중회장): 300,000 군산좌승지공중회 : 100,000

四世祖 靑城伯(諱:德符)秋享奉行

10월25일(음:9월15일)



靑城伯 妣位
 初獻: 斗燮 相郁
 亞獻: 文燮 庚周
 終獻: 贊求 玄根
 大祝: 相直 執禮: 相稷 執事: 載求 載澈
 ▶祭需獻誠金
 안효공중회 : 300,000 안성중회 : 100,000
 도총제공중회 : 100,000 철원중회 : 100,000
 贊求(대중회부회장) : 100,000

五世祖 安孝公(諱:溫)仲秋節祀奉行

9월 25일(음:8월 15일 12시)



初獻: 洪鎮 亞獻: 讚秀 終獻: 洪燮
 大祝: 容圭 執禮: 載玉
 執事: 彦村 應植 載澈 應萬

安孝公配位三韓國大夫人(順興安氏)秋享奉行

10월24일(음:9월 14일)



初獻: 庚周 亞獻: 國鎮 終獻: 政燮(一竹)
 大祝: 光澤 執禮: 載玉 執事: 載澈 彦村 應植 應萬
 ▶祭需獻誠金
 예산중회장 承澤: 300,000 奎澤(남가좌동): 100,000

二世祖 奉翊大夫公(諱:晟)秋享奉行

11월4일(음:9월25일)



奉翊公 判書公 典書公
 初獻: 상욱 홍섭 裕澤
 亞獻: 상인 상운 재택
 終獻: 준하 태봉 성열
 大祝: 相夏 相夏 相夏
 執禮: 相稷 執事: 재철 상한, 형택 상우, 완용 용선
 ▶祭需獻誠金
 安孝公宗會 : 300,000 奎澤(남가좌동) : 100,000

靑城伯 初配位(淸州宋氏)秋享奉行

10월27일(음:9월17일)



靑城伯初妣位 都摠制公 妣位
 初獻: 相殷 相烈
 亞獻: 中來 尙道 琦燮
 終獻: 玄根 揆燦 洪燮
 大祝: 奎澤 執禮: 相昊 執事: 相中 載澈
 ▶祭需獻誠金
 도총제공중회 : 200,000 奎澤(남가좌동): 100,000

五世祖 靑原君(諱:淙)秋享奉享

11월17일(음:10월 8일)



獻官: 載求(仁壽府尹公派宗會 總務)

七世祖 內資寺判官公(諱:浚)秋享奉享

11월11일(음:10월 첫일요일)



初獻: 相烈 亞獻: 萬澤 終獻: 相경
大祝: 洪燮 執禮: 昌燮 執事: 相鶴 奉燮
* 八世祖 敦寧府都正公(諱:順道)
* 九世祖 贈戶曹參議公(諱:巨源)

仁壽府尹公 할아버지 秋享奉行後 所懷

인수부윤공은 4세조 청성백(靑城伯 諱:德符)의 넷째 아드님으로 1373년(추정) 개성에서 출생하시어 유년시 절부터 당시 대학자이신 운곡 원천석(耘谷 元天錫) 선생 문하에서 판사공(諱:義龜) 돈재공(諱:繼年) 두 형님과 동문수학하여 학문과 인품이 출중하였다.

1392년 태조원년 특채로 군위(軍衛)에 출사한 후 1396년 태조5년 호군(護軍)을 거쳐 대장군(大將軍)에 승진되고

1418년 세종원년에는 인수부윤(仁壽府尹)에 제수되었다.

1418년 11월 무술옥사 사건으로 공께서는 전라도 海南으로, 아드님 양혜공(良惠公 諱:石雋)은 순천 樂安으로 유배되었다.

1420년 유배생활에서 풀려나서 처가가 있는 여산(礪山)에서 宋씨할머니와 여생을 보내시다 1432년 4월 17일 향년 60세로 별세하셨다.

<산소 사적>

여기 고산은 서울에서 거리가 멀고 교통이 매우 불편한 곳으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는 동안 산소를 실전하게 되었다.

1710년(숙종36) 만사상공(晩沙相公 諱:之源)의 손자이신 16세조 군수공(軍廷老)께서 恩津현감으로 재임시 백방으로 탐문한 끝에 이곳 산소를 찾아내어 퇴락되어 있는 봉분을 사조한 후 묘비문을 스스로 찬하고 참봉공(參奉熙)의 글씨로 비를 세워 드렸다.

1901년(고종5) 대사헌 문충공 은진 송병선(宋秉璿) 선생이 비명을 찬하고 그의 동생 의금부도사 송병순(宋秉珣) 명필의 글씨로 우측 묘갈을 세웠으며 당시 정화사업은 玉果宗中에서 주도하였다.

1982년 10월20일 - 12월10일(50일간) 인수부윤공과 중회장 봉구(奉求)씨와 총무 성구(誠求)씨 주도하에 후손들이 성금 1,500만원을 모아 대대적인 묘역 정화사업을 시행하여 현 상태와 같이 훌륭하게 마무리했던 것이다.

2007. 10. 27
인수부윤공 21대손 愚慶



청송 중대산소 안대석 설치

성묘객의 편의를 위하여 중대산소의 안대석을 약수탕길 삼거리 와 산소입구에 설치하였다. (2007.10.5)

八世祖 舍人公(諱:順門)秋享奉享

10월29일(음: 9월19일)



初獻: 相默 亞獻: 昌燮 終獻: 龜燮
九世祖 忠惠公(諱:連源) 十世祖 翼孝公(諱:綱)
▶祭需獻誠金
春川信川公宗會: 100,000 忠翼公派宗會: 100,000
茂叔公宗會: 200,000 元燮(金浦): 100,000

九世祖 曉窓公(諱:逢源)秋享奉享

11월10일(음:10월 1일)



曉窓公 正字公 一松公 僉正公
初獻: 相昊 鴻圭 彰來 平來
亞獻: 鳳來 永澤 成輔 載求
終獻: 興來 성래 中來 承喜
大祝: 成來 容圭 相直
執禮: 洪燮 相昊
執事: 성래 현규 재홍 원택 재서 삼규

九世祖 左議政公(諱:通源)秋享奉享

11월19일(음: 10월10일)



初獻: 能心 亞獻: 完澤 終獻: 英澤
大祝: 宜英 執禮: 洪燮

康主簿公(恭肅公 養父) 秋享奉行

10월31일(음 9월21일)



初獻: 種福 亞獻: 李載寬 終獻: 昌燮(인천)
大祝: 相直 執禮: 相稷 執事: 容圭 載澈
▶祭需獻誠金
安孝公宗會: 300,000 奎澤(남가좌동): 100,000
德水李氏玉山公宗會: 50,000

十世祖 谷山公(諱:鏞)秋享奉享

11월24일(음: 10월15일)



初獻: 堯澤 亞獻: 相德 終獻: 載澈
大祝: 載昌

11世祖 信川公(諱:孝謙)秋享奉享

11월18일(음: 10월 9일)



初獻: 元輔 亞獻: 永澤 終獻: 胤燮

포스텍 출신 심지훈(청주 재복의 자) 박사 <중페르미온 형성 비밀 풀어>

전자통신 제품에 주로 쓰이는 고온초전도 및 새로운 초전도체 제작에 중요한 단초를 제공할 수 있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포스텍은 포스텍 물리학과 학부 및 석박사 출신의 심지훈 미국 럿거스대 대학 박사후연구원(물리학과)과 럿거스대 연구팀이 최근 금속화합물에서 전자가 1000배나 무거워지는 중페르미온(heavy fermion)의 형성 비밀을 풀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연구결과는 세계적 과학저널인 사이언스의 온라인판 사이언스 익스프레스 1일자에서 공개됐다. 심 박사는 같은 이론을 적용해 플로토늄의 물성을 규명한 논문을 지난 3월 네이처에서 발표함에 따라 7개월 사이에 네이처와 사이언스에 잇달아 논문을 게재하는 쾌거를 올렸다. 포스텍에 따르면 심 박사는 극저온에서 일반 전자보다 유효질량이 100 1000배 무거워지는 페르미온의 형성을 설명하는 이론을 제시했다. 이는 앞으로 고온초전도체 등 전자통신기기 개발에 주로 사용되는 금속복합화합물 개발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페르미온은 전자 등과 같이 반정수 스핀을 갖는 기본 입자를 통칭하는 것으로 양자역학 법칙에 따라 동일한 입자가 같은 자리에 존재하는 것을 거부하는 성질을 갖고 있다. 여기서 중페르미온 전도체는 양자컴퓨터 등에 활용되는 고온초전도체와 성질이 유사한 것으로 알려져 고온초전도체 개발 연구와 함께 최근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지만 중페르미온 물질계의 전자구조를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심 박사는 동역학적 평균장 이론(DMFT: Dynamical Mean Field Theory)을 이용, 온도에 따른 중페르미온의 형성과정을 성공적으로 설명했으며 이를 통해 그동안 논란이 돼온 광전자 분광학에 대한 실험 등의 결과들을 성공적으로 재현했다.

<포항 정재훈 기자>

강좌

심갑보(三益 THK 株) 부회장의 현장경영학



부회장 심갑보

세종대왕의 인재경영

세계화 시대, 비전과 활력을 지닌 소수정예의 인재가 특히 중요하다. 핵심인력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가.

해외의 선진기업들은 핵심인재가 갖추어야 할 능력으로 전문성·지적역량과 함께 도덕성이나 인간적 매력 등 정서적 역량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GE는 자기분야의 전문 기술적 능력도 중요시하지만 직원들을 잘 관리하고 이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거나 적합한 사람을 찾아 일을 진척시킬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춘 사람을 핵심인재로 강조한다. 리더십을 평가할 때에는 아무리 성과가 탁월한 인재라도 회사의 핵심 가치인 4E(Energy: 열정/Energize: 동기부여능력/Edge: 집 중 결단/Execution: 실행력)에 배치되거나 도덕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핵심인재 관리대상에서 철저히 배제한다.

일본의 소니(SONY)사는 디지털 드림키드(Digital Dream Kid)라는 인재상을 바탕으로, 개개인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추구할 수 있는 조직 환경 마련에 초점을 두고 있다. SONY의 핵심인재 요건은 크게 5가지로 요약한다.

첫째, 호기심이다. 다양한 분야에서 최고 최선의 것을 알고 있어야 하고 최신분야에서 독특한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상품제작비즈니스에 대해 최선을 다하는 집념을 요구한다.

셋째, 집착할 것과 유연하게 대응할 것으로 구분해 에너지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유연성을 갖추어야 한다.

넷째, 잘 될 것이라는 자세로 역경에 도전하는 낙관론이 필요하다.

다섯째, 어려움에 놓이더라도 스스로 책임을 지고 위험을 감수하는 책임감을 배양해야 한다.

미국의 메릴린치(Merrill Lynch)사는 ①지적능력 ②열정 ③혁신지향 ④인재육성능력을 중시하고 여기에 인간적 매력을 필요요소로 포함하고 있다.

삼성의 이진희 회장은 T자형 인재를 좋아하고 I자형 인재를 배척한다고 한다. I자형 인재란 한 가지 분야에만 정통하고 다른 분야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가리킨다. 반면에 T자형 인재란 자기분야에 정통한 것은 물론이고 다른 분야까지 폭 넓게 알고 있는 종합적인 사고능력을 갖춘 인재를 말한다. 첫째, T자형 인재는 입체적 사고, 전체를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갖추고 있으면서 어떤 임무가 주어지던 I자형 인재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을 발휘한다. 둘째, 앞으로는 서로 다른 기술이나 산업이 결합하여 새로운 산업을 창조하는 복합사회가 될 것이기 때문에 T자형 인재와 같은 종합기술자가 필요하게 된다.

무한경쟁시대에서 핵심인재의 확보는 절체절명(絶體絶命)의 과제이다. 이것은 비단 삼성 같은 선발기업뿐만 아니라 글로벌기업들의 공통된 과제이다. 국내외의 소

위 일류기업들의 경우에는 인재선발에 대한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어 확고한 CEO의 의지만 있으면 비교적 쉽게 핵심인재를 선발하여 활용할 수가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는 제반 여건이 대단히 어려운 실정이므로 우리 선조인 세종대왕의 인재경영법에 주목해 보고자 한다.

세종 시대에는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대거 출현했다. 이 사람들이 다 어디에 숨어 있다가 나타난 것일까? 그 비결은 단점이 있는 사람도 쓸모가 있으면 교화하여 쓴다는 세종의 경영론에 있다고 평가한다. 세종은 학문이 뛰어난 성삼문 신숙주로 하여금 나라의 글인 한글을 만들게 하여 중국과의 문화전쟁에서 조성의 차별성을 확보하게 했다.

한편 재주 있는 사람은 문벌과 신분을 가리지 않고 중용했다. 황희는 서열(庶孽)출신이었고 장영실은 부산지역의 관노(官奴)였으며, 최윤덕은 배움이 적은 사람이었다. 그러나 황희에게는 인재를 알아보는 날카로운 통찰력을 빌려 썼고, 장영실에게서는 과학적 천재성을 빌려 썼으며, 또 배움이 적은 최윤덕에게서는 무용(武勇)을 높이 사 김종서와 함께 북방을 안정시킨 것은 모두 그 강점을 빌려 적재적소에 그들을 활용했기 때문이었다.

중소중견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인재 확보를 위한 제반 여건이 불리하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므로 세종대왕의 용병술을 잘 원용해 이미 확보되어 있는 인재를 그 단점보다 장점을 살려 적재적소에 잘 활용한다면 무한한 능력을 발휘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 끝 >

강원감영제 행사 거행(江原監營祭 行事 舉行)



江原道 原州에서는 지난 10월 6일 오후 2시 朝鮮朝 500년 간에 부임하였던 500명의 관찰사 후손들이 참여한 가운데 일년에 한번씩 거행되는 순력행사(巡歷行事)가 성대하게 거행되었다.

순력행사라 함은 도관찰사(道觀察使)가 각 고을을 순찰하면서 백성들의 생활상을 살피고 어려움을 청취하여 그 정상을 위로 보고하고 조정의 시책을 백성들에게 하달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또한 각 고을의 현감이나 관리들의 善政과 惡政에 관한 문제를 함께 다루어 온 것을 말한다.

이 순행에는 將校와 軍官 그리고 都事와 察訪등의 관리가 수100명이 함께 뒤를 이었는데 감사마교(監司馬轎)와 10여 필의 말이 동원되며, 이 때에 악대로는 나팔과 호적 등으로 그 행사에 흥취를 돋우고 그 뒤로는 원수(元帥)의 대형기를 비롯하여 각종 기를 휘날리며 백여필의 말과 1000여명의 수행원이 꼬리를 물고 뒤를 따르니 그 위세도 자못 장관이다.

이 행사는 조선조에 있었던 순력행사를 재현하는 행사였기에 강원감사(江原監司)를 역임하신 500명의 후

손들은 각각 선조의 이름이 새겨진 깃발을 들고 행진에 참여하였다. 우리 문중에서는 관찰사를 역임하신 분이 일곱 분 이신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2世 沈詒 (후에 判義禁府事, 靑松君) 14世 沈桴 (禮曹參判) 17世 沈宅賢 (判義禁府事) 17世 沈聖希 (禮曹參判) 17世 沈晉賢 (禮曹參判) 18世 沈星鎭 (工曹判書, 漢城府判尹) 18世 沈鏞 (都承旨, 京畿觀察使, 禮曹判書). 위와 같이 7명으로 강원도 관찰사로 역임하신 전국 58성씨 중 순위가 7번째로 우리 후손들에게도 더 없는 자긍심을 갖게 해주셨다.

靑松沈氏原州地域宗會에서는 이날의 행사에 참석하기 위하여 오전에 理事會를 개최하고 점심식사를 마친 다음 행사장에 들어섰다. 많은 宗人이 참여한 가운데 우리 宗人들은 모두 유건(儒巾)을 쓰고 또 관찰사 누구의 후손이라는 꽃 리본을 각자 가슴에 달았으며 선발대에는 관찰사의 이름이 새겨진 큰 깃발을 앞에 세워두고 2km나 늘어난 행렬 선두에서 서서 걸으니 참으로 조상님들의 훈업(勳業)으로 우리문중을 名門巨族으로 들게 하셨다고 생각하니 그 조상님들의 蔭德을 헤아릴 길이 없다.

행진을 하는 곳곳에서는 행사를 보러온 1,000여명의 시민들이 연도를 가득 메운 채 열렬한 갈채와 환호로 맞이하니 三韓甲族의 의미가 이런 것이라고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한 하루였다.

靑松沈氏 原州橫城宗會 總務 相基

위 글에는 우리문중의 관찰사가 7명으로 되어있으나 구 韓末의 관찰사 휘 相薰 공이 계시어 실제로는 8명이다.

素川 沈宜杓 시인 육필문예비(詩碑) 제막

지난 11월 3일 한국육필문예보존회(대표 이양우 시인)에서 충남 보령 육필문예공원에 건립하는 작고 문인(김소월 시인) 등 일부와 현역 중진급 이상 문인들의 육필문예비 제막식에서 전북 중회장을 한 바 있고, 현재 대중회와 안효공 중회 이사로 있는 심의표 시인의 <어머님의 사랑>을 제목으로 한 육필문예비의 제막식이 거행되었다.



▶ 시인 심의표 시비

어머님의 사랑

별걸게 가슴 졸이며
몸을 사르는 초발

타는 심지 땀한 습결은
월광으로 드리운 흑진주

아픔으로 멎든 세월들
녹아내리는 눈물은
은하수 흐르는 정안수

함초롬히 은빛 미소로
흘어내는 수미산의 장명등

언제 멋졌으랴
넓고 깊으신 그 사랑

지금도 내 심연에 가득
맑게 흐르고 있는데

人事

- 鉉程: 법재처 사회문화 법제국 법제관
- 창진: 국세청 납세자 보호담당관 사무관
- 귀식: 국세청 나주세무서 세원관리과장
- 瑛烈: 한국기계연구원 혁신인사실장
- 和石: 국무조정실 조사심의관실 총괄기획과장
- 相福: 중앙일보 경제부문 에디터
- 沆澤: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교수(大田 宜哲씨의 三男)
- 규철: 미주씨앤아이-케미컬 사업본부장 전무
- 재명: 대구한의대 총무팀장

理事會費

정식	2007년	光州
相祐	2008년	春川
載求	2008년	三陟

誠金에 感謝합니다

宗報贊助

載俊	50,000	부천 심곡동
창용	30,000	영주
재덕	30,000	응암동
재원	10,000	춘천
宣武功臣派宗會長(觀燮)	100,000	
건섭	50,000	동탄
상윤	30,000	속초시
정식	50,000	光州
경중	100,000	파주
현주	30,000	부산

祝

博士學位 取得

沈宜哲(大宗會理事, 大田)씨의 長男 雄澤君 2007년 8월 江原大 哲學博士

祝

佛 슈발리에 훈장 수여

조각가 심문섭 中大教授

조각가인 심문섭 중앙대학교수가 프랑스 정부가 주는 문화예술훈장인 슈발리에 훈장을 받는다. 심교수는 파리 작품전 및 프랑스 미술인들과의 교류를 통해 한국 미술을 현지에 알리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수여식 12월 12일

- 주한프랑스문화원 -

青松沈氏 仁壽府尹公派宗會 任員改選

- 顧問: 明求 鍾燮 榮燮 完求 璋燮
- 會長: 晶求
- 副會長: 贊求 鎮植 根植
- 監事: 鍾赫 大植
- 總務: 載求
- 理事: 暎求 奎燮 德求 鍾德 駿求 求亨 長植 春植 應輔



신임 총무이사 沈 載 求

靑報會 동정



< 始山會로 청계산 등정 >

靑報會(靑松沈氏宗報 발송 모임) 회원 7명이 9월 22일 9시 30분 과천대공원역에서 始山會로 청계산을 등산하였다. 총무(載求)의 안내에 따라 1시간 정도 산을 오르다보니 몸도 무겁고 숨이 차고 다리도 아파서 약수터에 앉아 휴식을 취하며 막걸리 한 사발을 마시니 모든 것이 내 세상 같은 기분이었다.

74세인 相華씨는 탁주의 약발인지 발걸음이 확 달라지고, 相厚씨는 지병으로 몇 달 전에 대수술을 하였는데도 정상에 도전하는데 어려움은 있었으나 너끈히 해낸 것이 꿈만 같았다고 하였다.

서초구 옛골 쪽으로 하산하여 5시간여의 12km 산행을 마무리 하였다. 총무의 단골집에서 목을 적시면서 오늘의 산행은 매우 의미가 있었다는데 공감하면서 앞으로는 매달 한 번 이상 산행을 하기로 약속하였다.

參席者: 相華 相厚 洪燮 求亨 載求 載烈 種福

< 南漢山城 登山 >

10월 3일 10시 마천역에 회원 10명이 모여 남한산성을 향하여 출발하였다. 오르는 동안 이슬비가 조금씩 내렸으나 등산하기에는 좋은 날씨였다. 8부 능선에 오르니 안개가 밀리로 꼭 차있어 장관이었다. 휴식을 취하면서 탁주 한잔을 마시고 나니 노익장을 과시하듯 발걸음이 가벼워져서 마지막 정상에 도전하였다. 北門에 도착하여 잠시 숨을 고르고 성벽 옆으로 10분간 걸어 수어장대 입구에 도착하였다. 문화이사께서는 山城內 종점까지 버스를 타고 와서 2km정도 올라와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교장 南漢山城에 온 것을 환영한다며 반갑게 인사를 하였다. 휴식장소를 택하여 점심식사를 마치고 수어장대(守禦將臺)로 올라갔다. 남한산성은 병자호란 때 인조께서 피난을 오신 곳으로 임금님이 도성을 버리시고 이곳으로 피난하여 고생이 많으셨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내려올 때는 남문을 통과하여 1시간 30분 동안 거뜬하게(상화씨의 농담: 발만 들면 저절로 내려간다) 하산하였다.

4시쯤 되어 출출한 터에 相華씨 제의로 성남 은행동에 있는 소문난 감자탕집에서 식사를 하면서 오늘 산행에 대하여 이야기 꽃을 피우며 피로를 풀었다.

參席者: 相華 相厚 洪燮 亨求 載求 載澈 載烈 春植 愚夏 昌輔 種福



▶ 山세조 청화부원군(휘 龍) 산소 돌레석 설치(2007.11.15)

풍곡(楓谷)

시조시인 심성보 (부경대학교수 공학박사)

곳간이 그득한 만추(晩秋) 청천(靑天)은 공산(空山)에 가물하네

싸리울은 바람의 가야금 명월(明月)아 발을 멈춰라

산(山)버들 하야 앓는 반시목(盤柿木) 너도 그만 선율(旋律)에 젓느뇨

콩 튀듯 사는 도회(都會) 매차워 슬픈 사연

팔조령 가을새로 휘이 휘이 서포(西浦)로 가네

명월(明月)아 길을 물어 무엇하리 나 여기 슬이 먼저 이고나

* 팔조령: 대구와 청도 사이에 위치한 고개

宣武功臣(諱:友信) 秋享奉行

2007년 陰曆 8월 21일 (彪義祠堂)



▶ 전남 장성군 삼서면 유평리

관내 儒林 및 本孫 55여명이 參席하에 秋享奉行을 舉行하였습니다.

初獻: 金在洙 亞獻: 奇源達 終獻: 劉官鍾 大祝: 金泳豊 執禮: 吳光燮

<여주·양평>부총관공(휘:旭)종회 성묘 순례



10월 7일(일요일) 아침 일찍 잠실에서 30여 회원이 선조성묘 순례지로 출발하였다.

인섭 회장님의 인사말에 이어 오늘의 성묘계획에 대한 말씀이 있었다. 연천 아미리 4세조 청성백(휘 德符) 산소에 성묘한 후 파주의 6세조 공숙공(휘 濬) 산소, 7세조 내자시판관공(휘 浚) 산소 성묘를 끝내고, 이어서 고양 원당 9세조 효창공(휘 逢源) 이하 정자공(휘 鍾), 일송공(휘 喜壽), 침정공(휘 昌壽), 부총관공(휘 旭), 온양공(휘 稹), 순으로 성묘를 하였다. 변덕스러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예정된 김포 옹정리 8세조 사인공(휘 順門) 이하 충혜공(휘 連源), 익효공(휘 綱), 산소에 성묘를 마치니 벌써 오후7시가 넘었다. 오늘은 날씨가 불순하여 여러 회원들이 고생은 하였지만 그래도 선조님의 묘소에 참배하고 나니 마음이 편한 것 같습니다.

부총관공(휘 旭)종회